

# 「随分」의 意味・用法에 대해서

- 『오쿠라 도라이키라본 교겐슈(大蔵虎明本狂言集)』를 대상으로 하여 -

양미석\*

yms0803@paran.com

## Contents

1. 들어가며
2. 「随分」의 의미 분석
3. 부사 「随分」과 기능문과의 연관관계
4. 맺음말

## Abstract

「随分」は現代日本語では「かなり、相当に、とても」などの意味で程度副詞として用いられている。ところが、中世日本語に遡ると、「随分」が「できる限り、できるだけ」などの意味も用いられる例も現れる。本稿では『大蔵虎明本狂言集』に表れている「随分」の用例を抽出・分析することによって、その当時の「随分」の持つ意味の多重性について考察する。

『大蔵虎明本狂言集』では、「かなり、相当に」の意味に表れている「随分」は状態述語(形容詞・形容動詞・状態動詞)を修飾し、「自分にできる限り・できるだけ」の意味に表れている「随分」は動作動詞・意志動詞を修飾していることが確認できる。後者は副詞そのものに「できる限り」という可能の意味が内在しているため、この場合、「随分」の文は可能文への変換が可能になる。すなわち、可能文に変換できる文の中の「随分」は「できる限り、できるだけ」の意味を獲得することになる。

Key Words : 随分、程度副詞、状態述語、意志動詞

## 1. 들어가며

현대일본어에서 「随分」은 통상 「상당히, 아주, 꽤」에 해당하는 뜻으로 쓰이고

---

\* 고려대학교 강사

있는데, 교겐(狂言) 등의 중세일본어의 자료에서 나타나는 용법을 살펴보면 현대어의 의미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예가 발견된다. 따라서 과거의 문헌자료에 나타난 「隨分」을 현대일본어적 시각으로 조명하면 그 당시의 의미 용법을 적확히 파악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大藏虎明本 狂言集』(이하『도라아키라본 교겐(虎明本狂言)』이라 칭함)을 대상으로 하여 그 당시 「隨分」이 어떤 의미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고찰한다. 『도라아키라본 교겐(虎明本狂言)』<sup>1)</sup>의 서사시기는 중세 후기로 되어 있어, 그곳에 쓰인 언어는 고전일본어와 현대일본어의 과도기적 성격, 즉 중세일본어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여러 교겐(狂言) 중 『도라아키라본 교겐(虎明本狂言)』은 극 예능으로서 대본의 형식을 최초로 갖추고 있으며, 그 자료의 성격상 중세일본어의 구두어적 요소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 2. 「隨分」의 의미 분석

현대일본어에서 정도부사<sup>2)</sup> 「隨分」은 「상당히, 아주, 꽤」 등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정도부사에 대해서는 사전류<sup>3)</sup>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1) 1642년 오쿠라 도라아키라(大藏 虎明)에 의해서 서사되었음(『狂言之本』). 와키교겐 종류(脇狂言之類), 다이묘교겐 종류(大名狂言之類), 오니·쇼묘 종류(鬼類小名類), 무코·야마부시 종류(賀類山伏類), 온나교겐 종류(女狂言之類), 슛케·자토 종류(出家座頭類), 아즈메교겐 종류(集狂言之類), 요로즈아즈메 종류(万集類)의 8冊으로 이루어진다. 가타리(語り), 마이우타이(舞謡), 아이교겐(間狂言) 등 특수한 것을 많이 수록하고 있는 요로즈아즈메종류(万集類)를 제외하고, 와키교겐 종류부터 아즈메교겐 종류(集狂言之類)까지는 본 교겐 231곡이 수록되어 있다. 대본 형식을 갖춘 가장 오래된 것으로 교겐 연구의 기본적인 자료가 된다. (蜂谷清人(1977) 『狂言台本の国語学的研究』, 笠間書院, p.364)

2) 程度副詞とは、それ自身は実質的な概念を持たず、広く用言や副詞に係り、その状態性の程度を修飾限定するものである。(金田一春彦・林大・柴田武 編(1988) 『日本語百科大事典』, 大修館書店)

3) 松村明 編(1971) 『日本文法大辞典』, 明治書院, p.516. 金田一春彦・林大・柴田武 編(1988) 『日本語百科大事典』, 大修館書店, p.173. 北原保雄・鈴木丹士郎・武田孝・増淵恒吉・山口佳紀 編(1981) 『日本文法事典』, 有精堂, pp.172~173. 小池清治・小林賢次・細川英雄・犬飼隆 編(1977) 『日本語学キーワード事典』, 朝倉書店, p.362

다수의 예문을 수록하고 있는 『日本文法大辞典』(1971)을 통해 정도부사의 기능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그 예문을 들면 다음과 같다.

- [1] いと美し/はなはだ静かなる夜/もっと早く歩け/ごく近い所/よほど苦しいらしい/きわめて健康だ/ちょっとおかしい/たいへん正確だ/ずいぶん遠いね  
 [2] ちょっと右へ寄れ/もっと遠方から来た/ずっと昔の話/やや東の方/かなり右寄りの所/もう一時間待って下さい  
 [3] ちょっとゆっくり歩け/もっとしっかり書きなさい/ずっとはっきり見える/ややしばらくたって/かなりゆっくりやっている/ずいぶんきらきら光る  
 [4] かなり努力した/もっと勉強しろ/やや疲れる/ずいぶん歩いた/ちょっと出かける

정도부사의 용법을 살펴보면, [1]에서는 형용사·형용동사를 수식하고 있고, [2]에서는 시간·공간·방향·수량을 나타내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 그리고 [3]에서는 정태부사를 수식하고 있고, [4]에서는 정태부사<sup>4)</sup>와 마찬가지로 동사를 직접 수식하고 있다.

현대일본어에서 「随分」은 [1]의 「ずいぶん遠いね」, [4]의 「ずいぶん歩いた」와 같이 대부분 형용사나 동사를 수식하여 「상당히, 아주, 꽤」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随分」을 이러한 현대어적 의미로만 파악할 경우, 고전 자료에 나타나고 있는 「随分」의 의미를 적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여기에서 우선 고전일본어에서는 부사 「随分」이 어떠한 의미로 쓰였는지 검토해 보기로 하자.

『新明解古語辞典』: ①分に应じて。身分相应に。②(不完全ではあるが)自分としては全力を尽して。極力。せいぜい。③程度が相当であること。かなり。④(依頼の文に用いて)できるだけ。なるべく。⑤(下に打ち消しの語を伴って)容易には。なかなか。⑥非常に。

『角川新版 古語辞典』: ①分際に应じて。身分相应に。②できるだけ。せいぜい。③すこぶる。はなはだ。④(下に打消の表現を伴って)なかなか。容易には。

4) 情態副詞(狀態副詞とも表記される)とは、それ自身が実質的な概念を持ち、主として動詞に係って、その動作・作用・状態変化のありかたを修飾限定するものである。(金田一春彦・林大・柴田武 編(1988) 『日本語百科大事典』、大修館書店、p.173)

けっして。

『時代別国語大辞典・室町時代編』: ①その人の、力量・能力・身分などの程度に相応した対応のしかたをするさま。②その類のものとして、求めうる最高の、ないしはそれに近い程度のものであるとみなされるさま。③身分なりの力量や配慮の及ぶかぎり精一杯努めるさま。④打消の言い方と呼応して、決してそうはしないという強い決意のほどを表明するさまを表す。

『日本大辞典』: ①(不十分ではあるが)そのものの立場でできるかぎりのことをするさま。ぎりぎりの線まで。極力。せいぜい。②程度が相當であるさま、ひとかたでないさまをいう。はなはだ。大いに。非常に。かなり。

이상, 각 사전에 제시되어 있는 예문을 살펴보면, 고전일본어에서의 「隨分」은 현대일본어에 비해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고전 자료를 음미할 때는 「隨分」이 지니고 있는 의미의 다중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사전에 기술되어 있는 「隨分」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어떤 특정 의미를 무원칙하게 선택하여 이를 해당 예문에서의 의미로 결정짓는다고 한다면, 해석자의 입장과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따라서 「隨分」에 적용한 현대어역의 의미가 과연 적확한가에 대해서도 검증이 요구된다.

『도라아키라본교겐(虎明本狂言)』에 나타난 「隨分」의 의미를 이케다·기타하라(池田・北原)<sup>5)</sup>는 「かなり, 相當に」와 「私にできるかぎり, できるだけ, せいっぱい, 極力」로 2분류하여 「隨分」이 출현할 때마다 그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석을 달고 있다.

[5] (聳)\それはうれしうござる、こなたの仰らるゝほどならば、隨分きれいになくはさやうに仰られまい、「鶏聳(にはとりむこ)」上・332-7

→ 隨分 : 非常に。とても。

(사위)\그것 참 기쁩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정도라면 **상당히** 멋지지 않으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겁니다.

[6] (太郎冠者)\大事のお留守にでござる程に、隨分ね(寢)ふるまひとぞんじてりますればこゝな二郎くわじやが申事は、いざゝらはね(寢)ふたなぐさめ(慰)

5) 池田広司・北原保雄(1972~1983) 『大藏虎明本 狂言集の研究(本文篇 上・中・下)』、表現社

に、すまふ(相撲)をとらふと申てござる、「ぶす」上・271-11

→ 隨分：できるだけ。せいいっぱい。

(다로카자)\중요한 집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 \*상당히/가능한 한(할 수 있는 한, 되도록) } 잠을 자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지로카자가 말하기를 ‘그러면 잠을 깨우기 위해서 스모를 하자’고 말했사옵니다.

이와 같이 이케다·기타하라(池田·北原)가 「隨分」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주석에 명기하는 이유는 『도라아키라본 교겐(虎明本狂言)』에 쓰이고 있는 「隨分」을 현대일본어의 시각으로만 해석하면 그 文意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즉, [5]의 「隨分」의 경우는, 현대일본어의 「상당히, 아주, 꽤」로 해석해도 그 의미가 통하지만, [6]의 「隨分」의 경우는 현대일본어의 의미로 해석하면 문의가 통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라아키라본 교겐(虎明本狂言)』에 나타난 「隨分」의 모든 용례에 주석을 달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라아키라본 교겐(虎明本狂言)』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해석자마다 그 견해를 달리 할 수 있고 이는 다른 한편으로 해석상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케다·기타하라(池田·北原)의 『大藏虎明本狂言集の研究(本文篇 上·中·下)』를 텍스트로 하여 『도라아키라본 교겐(虎明本狂言)』에 나타난 「隨分」의 용례를 모두 추출, 「隨分」의 정확한 의미 분석을 행하고, 「隨分」의 다중적인 의미에 대해서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sup>6)</sup>. 해당 용례에 대해서는 아래의 예와 같이 교겐 제목, 卷(上·中·下), 이탤릭체의 밑줄 친 부분(「隨分」과 「隨分」의 수식을 받는 말)의 쪽수와 행을 표시하기로 한다. 또한 「隨分」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후 문맥에 대한 충실한 이해가 요구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하여 한국어 역을 넣기로 한다.

<例> (男二)\それこそやすひ事なれ、隨分つけてみせよう「連歌毘沙門」上·

32-12

6) 고찰대상 범위는 『도라아키라본 교겐(虎明本狂言)』의 와키교겐 종류(脇狂言之類) 32곡, 다이묘교겐 종류(大名狂言類) 33곡, 무코·야마부시 종류(賀類山伏類) 27곡, 오니·쇼묘 종류(鬼類小名類) 38곡, 온나교겐 종류(女狂言之類) 33곡, 숫게·자토 종류(出家座頭類) 35곡, 아츠메교겐 종류(集狂言之類) 33곡으로 총231곡이다.

(남자2)\그거야 쉬운 것이로구먼. 내가 할 수 있는 한 붙여 보이겠소이다.

## 2.1 「상당히, 아주, 꽤」의 의미로 해석되는 「隨分」

여기에서는 먼저 「隨分」이 현대일본어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아주, 꽤」의 뜻으로 해석되는 예를 모두 추출하여 「隨分」과 「隨分」의 수식을 받고 있는 슬어와의 의미적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용례를 보기로 하자.

- (1) (牛博勞)\某が隨分と(疾)うまいつたとぞんじたれば、はやなに(何)者やらまいつたよ、「牛馬」上・121-6  
(소거간꾼)\내가 상당히 빨리 왔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어떤 자가 왔구나.
- (2) (淺鍋売)\~隨分と(疾)う出たとぞんじたが、何といたひてよ(良)う御ざらふぞ、「なべやつばち」上・128-10  
(냄비장사)\~상당히 빨리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어찌해야 좋을까?
- (3) (粟田口)\中々、しゆすのきやはん(脚半)をふ断仕てゐる程に、隨分くろふ御ぎる 「粟田口(あはたぐち)」上・216-15  
(아와타구치)\물론입니다. 수자(繻子)의 각반(脚絆)을 평소에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검사웁니다.
- (4) (売手)\地紙とは此ちかみの事、隨分よ(良)ひかみでは(張)つておじやる、「すゑひろがり」上・70-17  
(장사꾼)\지가미(地紙)라는 것은 이 지가미(地紙:부채·우산 등에 바르는 용지)를 말하는 것이오. 아주 좋은 종이로 붙여졌습니다.
- (5) (太郎冠者)\なふおそ(恐)ろしや、あれにはけ(化)物が有、大仏のしやか(釈迦)ゞ、隨分おう(大)きひと存したがそれよりおう(大)きな、「なまぐさ物」中・130-10  
(다로카자)\아이고, 무서워라. 저기에 귀신이 있다. 대불석가(大佛釋迦)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도 크구나.

- (6) (鶯)\それはうれしうござる、こなたの仰らるゝほどならば、隨分きれいにな  
くはさやうに仰られまい、「鶏鶯(にはとりむこ)」上・332-7  
(사위)\그것 참 기쁩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정도라면 상당히 멋지지 않  
으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겁니다.
- (7) (吉田の何某)\ざぜんぶすま(坐禪衾)をかづ(被)ひて、こし方行末の事をあん  
(案)ずる事じや所で、ずいぶんきうくつ(窮屈)な事でおりやる「ざぜん」下・  
232-13  
(요시다의 아무개)\좌선의의를 뒤집어쓰고 과거와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일이  
니 상당히 갑갑한 일이오.
- (8) (売手)\一本をしなのどくさ(信濃木賊)、むく(椋)の葉をもつて七日七夜づゝ  
みがひておじやる程に、ずいぶん念がいつた、「すゑひろがり」上・71-2  
(장사꾼)\한 그루를 시나노(信濃)의 속새, 푸조나무 앞으로 이레 일곱 밤을  
뒹얏으므로 아주 정성이 들어갔소이다.

이상의 예에 있어서의 「隨分」은 「상당히, 아주, 꽤」에 상당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들 용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사 「隨分」은 (1)~(5)에서는 「と(疾)うまいつた(빨리 왔다)」, 「と(疾)う出た(빨리 나왔다)」, 「くろふ御ぎざる(검사옵니다)」, 「よ(良)ひ紙(좋은 종이)」, 「おう(大)きひ(크다)」와 같이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고, (6)(7)에서는 「きれいになくは(멋지지 않으면)」, 「きうくつ(窮屈)な事(갑갑한 일)」와 같이 형용동사, 그리고 (8)에서는 상태동사 「念がいつた(정성이 들어갔다)」를 수식하고 있다. 「隨分」의 수식을 받고 있는 술어는 형용사, 형용동사, 상태동사로서 모두 상태성술어로 무의지성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편, 다음은 「隨分」이 「상당히, 아주, 꽤」의 의미로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예인데 『도라아키라본 교젠(虎明本狂言)』에서 1개 정도 나타난다.

- (9) (大名)\いていはふずるは、ふべんなる所を見せてはつかしうこそあれ、さり  
ながら、かんにんをせられうならば、隨分ふち(扶持)をせう、「今まいり(今  
參り)」上・202-10  
(다이묘)\가서 말할 것은 궁한 모습을 보여서 부끄러울 것이다. 하지만 참

아낸다면 아주 듬뿍 녹미를 주겠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정도부사는 용언을 수식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지만, 시간·공간·방향·수량을 한정하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9)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는 「상당히, 아주, 꽤」의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이다.

이상, (1)~(9)에 나타난 「隨分」은 현대일본어와 마찬가지로 「かなり, 相當に」에 상당하는 의미로 「상당히, 아주, 꽤」로의 번역이 가능하고, 이러한 예는 『도라아키라본 교겐(虎明本狂言)』에는 총 9개 정도 나타난다.

한편 위와 같이 「상당히, 아주, 꽤」의 의미로 해석을 할 경우에는 文意가 통하지 않는 「隨分」의 예를 다음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 2.2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한, 힘껏」의 의미로 해석되는 「隨分」

정도부사는 동사도 수식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형용사와 형용동사를 수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도라아키라본 교겐(虎明本狂言)』에서는 형용사·형용동사보다도 동사를 수식하는 「隨分」의 예가 많이 쓰이고 있다. 「상당히, 아주, 꽤」의 의미로 해석할 경우에는 문의가 통하지 않는 예, 다시 말해서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힘껏」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隨分」의 용례는 『도라아키라본 교겐(虎明本狂言)』에서 총 31개 정도 출현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이에 관한 예를 검토한다.

(10)(男二)\それこそやすひ事なれ、隨分つけてみせよう 『連歌毘沙門』上·32-12  
(남자2)\그거야 쉬운 것이로구먼. {내가 할 수 있는 한 \*상당히} 붙여 보 이겠소이다.

(11)(太郎冠者)\いや鳥がな(鳴)くか∨と存て、隨分見てござあるが、ついになきまらせねども、日がたけて御ざ有程に、まずまいつてござある 「けいりう」中·106-12  
(다로카자)\아니오, 닭이 언제 울까? 언제 울까? 생각하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상당히) 보았사옵니다만, 끝내 [답이] 울지도 않아 해가 중천에 떴기에 우선 왔사옵니다.

(12)(孫一)\自然さやうの事も御ざるならば、き(聞)きまらして、此兩人して、随分 かなへてしんぜうとぞんじて是まで参て御ざる 「枕物狂」中·226-1

(손자1)\만약 그러한 일이 있다면 [할아버지 말씀] 듣고서, 저희 둘이서 {할 수 있는 한, 되도록, 가능한 한 / \*상당히) 이루어 드리려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13)(仲人)\それほどに思はゞ、身共にまかせておけ、随分 とめてみう「いしがみ」中·233-11

(중매인)\그 정도로 생각한다면 나에게 맡겨 두게, {가능한 한 / \*상당히) 맡려 보겠소

(14)(尼)\なく事は随分 なかうが、ふせを半分おくりやらふか 「なきあま」中·326-6

(비구니)\우는 것은 {할 수 있는 한(가능한 한) / \*상당히) 올려 보겠습니 다만, 시주를 절반 주시겠소?

(15)(ばくち打)\今日に成ませうか、ぞん(存)ぜねども、ずいぶん 申てみませう「みめよし」下·226-14

(도박꾼)\오늘로 될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한(최선을 다해서) / \*상당히) 말해 보겠습니다.

(16)(仲人)\まづVかんになん(堪忍)してゐよといふたが、さてはさやうに家でを致たか、随分 是へきたらはとめてはみうが、「いしがみ」中·233-8

(중매인)\우선 참으라고 말했는데 정말 그렇게 가출을 했소? {가능한 한(최선을 다해서, 힘껏) / \*상당히) 여기에 오면 맡려는 보겠지만.

(17)(夫)\それほどにおも(思)やはぜひ(是非)もなひさりながら随分 今からはたしまふ程に、こらへておくりやれかし 「みかづき」中·239-6

(남편)\그 정도로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소. 하지만 {할 수 있는 한(되도록, 가능한 한) / \*상당히) 앞으로는 자제할 테니 참아주시오.

- (18)(ばくち打)\某 ずいぶん(隨分) 申て、只今はへ同道いたひてござる「みめよし」  
 下・227-17  
 (도박꾼)\제가 {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 \*상당히} 말해서 지금 여  
 기에 같이 왔습니다.

이상의 예에 쓰인 「隨分」의 의미는 2.1에서 검토한 (1)~(9)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10)~(18)의 「隨分」을 「상당히, 아주, 꽤」로 해석하면 그 文意가 통하지 않고, 의지성을 내포한 「할 수 있는 한, 되도록, 가능한 한, 힘껏」으로 해석해야 그 문의가 제대로 통한다. 이들 예를 분석해 보면, (1)~(9)의 「隨分」이 상태성술어, 즉 무의지성 술어를 수식하고 있는 반면 (10)~(18)의 「隨分」은 「つけてみせよう(붙여 보이겠소이다)」、「見てござあるが(보았사옵니다만)」、「かなへてしんぜうと(이루어 드리려고)」、「とめてみよう(말려 보겠소)」、「なかうが(올어 보겠습니다만)」、「申てみませう(말해 보겠습니다)」、「とめてはみようが(말려는 보겠지만)」、「たしなまふ程に(자제할 테니)」、「申て(말해서)」와 같이 모두 의지동사를 수식하고 있다.

다음은 「隨分」이 부정의 의미와 호응하고 있는 예를 검토한다.

- (19)(簞)\まかせさせられひ、隨分とりまらすまひ、やがて參らふ「ひつしき簞」  
 上・342-16  
 (사위)\[제가 맡겨] 주십시오. { 되도록(가능한 한), 결코 / \*상당히} 풀지  
않겠습니다. 빨리 오겠습니다.
- (20)(太郎冠者)\隨分とりまらすまひ 「はなご」中・211-16  
 (다로카자)\{ 가능한 한(되도록), 결코 / \*상당히} 벗지 않겠습니다.
- (21)(太郎冠者)\その事てござる、大事のお留守にてござる程に、隨分ねふ(眠)  
るまひとぞんじてゐますればこゝな二郎くわじやが申事は、いざゝらはねふ  
 (眠)たなぐさめ(慰)に、すまふ(相撲)をとらふと申てござる、「ぶす」上・  
 271-11  
 (다로카자)\그것이 말입니다. 중요한 집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 가능한 한  
 (되도록), 결코 / \*상당히} 잠을 자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여

기에 있는 지로카자가 말하기를 ‘그러면 잠을 깨우기 위해서 스모를 하자’고 말했사옵니다.

앞에서 사전적 의미를 검토했듯이, 「隨分」에는 「打消の言い方と呼応して、決してそうはしないという強い決意のほどを表明するさまを表す(『時代別国語大辞典・室町時代編』)의 뜻이 담겨 있다. (19)~(21)은 이에 해당하는 예로 「隨分」이 「とりまらずまひ」「ねふ(眠)るまひと」와 같이 부정의 조동사와 「まひ」와 관계하고 있다. 이 경우, 「隨分+부정」은 「결코~하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とりまらずまひ」「ねふ(寢)るまひと」는 각각 「결코 벗지 않겠습니다」「결코 자지 않으려고」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隨分」이 부정과 호응하고 있는 예는 『도리아키라본 교겐(虎明本狂言)』에서 총 3개 정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케다·기타하라(池田·北原)에서는 (19)~(21)의 「隨分」을 「できる限り, できるだけ」의 의미로 파악하고 있다. (19)~(21)의 「隨分(결코)」는 원래는 「나에게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한」의 뜻을 나타내는데, 「隨分」이 부정과 호응하고 있는 관계로 「결코」라는 어휘로 대체된 것에 불과하다. (19)(20)에서는 각각 「とる」, (21)에서는 「ねふ(眠)る」<sup>7)</sup>라는 의지동사를 수식하고 있는 것은 (10)~(18)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도 이케다·기타하라(池田·北原)의 분류를 따르기로 한다.

다음은, 「隨分」이 한국어 역으로는 「상당히, 아주, 꽤」로 해석되지만, 실제 내포하고 있는 기본적 의미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한, 나에게 있어서 최대한, 힘껏」이라는 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예가 있다.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2)(新座)\隨分せいを入てかひまらせうほどに、お心やすうおほしめせ「人馬」上·223-14

(신참){할 수 있는 한, 힘껏/아주, 상당히} 정성을 들여서 기를 테니 마음 편히 생각하십시오.

(23)(新座)\かしこまつた、隨分せい(精)をいだしまらせう 「人馬」上·224-3

7) 「ねふ(眠)る」는 「ねふ(眠)る」이지만 원문에 충실했음.

(신참)\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아주} 정성을 쏟지요

(24)((~扱出合てみせて、うるはしう出来たと云時、随分精を出し作りたと云))

『かなづの地藏』中・360-9

((~그렇다면 서로 만나서 보여주고 훌륭하게 완성됐다고 할 때, {할 수 있는 한 힘껏/아주, 상당히, 꽤}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다고 말한다.))

(22)~(24)에서 『随分』은 각각 『せいを入れて(정성을 들여서)』, 『せい(精)をいだしませう(정성을 들이지요)』, 『精を出し作りた(정성을 들여서 만들었다)』를 수식하고 있으며, 『随分』의 수식을 받고 있는 술어는 『いれる』, 『いだす』, 『だす』로 모두 의지동사이다. 즉 이들 예의 『ずいぶん』의 경우, 한국어로는 「상당히, 아주, 꽤」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의미는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한』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22)~(24)는 앞에서 제시한 (8)과 대조를 이루는데 다시 한 번 그 용례를 보도록 하자.

(8)'(売手)\~一本をしなのどくさ(信濃木賊)、むく(椋)の葉をもつて七日七夜

づゝみがひておじやる程に、ずいぶん念がいつた、『すゑひろがり』上・71-2

(장사꾼)\~한 그루를 시나노(信濃)의 속새, 푸조나무 잎으로 이레 일곱 밤을 뒤았으므로 {아주\*할 수 있는 한} 정성이 들어갔소이다.

(22)~(24)와 (8)의 『随分』은 모두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아주, 꽤」에 상당하는 뜻으로 한국어 번역이 가능하다. 그러나 (22)~(24)의 『随分』이 「할 수 있는 한」에서 「아주」로의 대체가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한, 힘껏」을 나타내고 있는 데에 대해, (8)에서는 「상당히, 아주, 꽤」와 같은 한국어 번역이 가능하지만,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한, 힘껏」으로의 치환이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随分』의 수식을 받고 있는 (8)의 『念がいる』가 상태동사이자 무의지동사이기 때문이다.

이상, (22)~(24)의 검토를 통해 『随分』은 다른 어떤 어휘적 치환이 가능하더라도, 다시 말해 번역 상 다른 해석이 허용되더라도 그 기본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한, 힘껏, 최선을 다해서」라는 의미를 실현하고 있다

는 점을 확인했다. 이상의 주장을 보강하기 위해, 그 기본적 의미는 「できる限り, できるだけ」이지만 현대어 역에서 「かなり」로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는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 (25)(妻)\わらはも今までは、隨分かせひで御ざれども、さうもならぬ程に、とかくいか(生)いておいていらぬもので御ざる程に、～「はらきらず」中・195-9  
(아내)\나도 지금까지는 {?상당히/할 수 있는 한(힘껏,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었지만 도저히 안 되니 어쨌든 간에 살려 둘 필요 없는 사람이 나~

이상의 예의 「隨分」은 일견 「상당히, 아주, 꽤」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또한 「할 수 있는 한, 힘껏, 최선을 다해서」로도 해석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양자의 해석 사이에는 뉘앙스적 차이가 존재한다. 「隨分かせひで御ざれども」의 경우, 전자의 의미로 해석하면 「상당히 돈을 벌었지만」으로 해석되고, 후자의 의미로 해석하면 「할 수 있는 한(힘껏) 돈을 벌었지만」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かせぐ」가 의지동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수식하는 「隨分」의 의미도 「가능한 한」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전후 문맥에서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와 같은 예는 다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26)(簪)\近比(ちかごろ)かたじけなひ、家をは隨分もりたてうずる間、心やす(安)ふおほしめ(思召)せ 「さひの目」上・378-13  
(사위)\참으로 감사합니다. 집은 할 수 있는 한(힘껏, 최선을 다해서) 번 창시킬 테니 마음 편안히 생각하십시오.

- (27)(医師)\私も隨分いがく(医学)を仕たれ共、今までかみなり殿のれうじ(療治)のいたしやうをなら(習)はなんて御ざる、「かみなり」中・14-9  
(의사)\나도 최선을 다해서(있는 힘껏, 열심히) 의학공부를 했지만 지금까지 천둥님을 치료 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한」을 기본적인 의미로 지니고 있는 「隨分」의 피수식어는 전부 의지성의 성격을 구비하고 있는 동사이며, 이는 2.1에서

『상당히, 아주, 꽤』의 뜻으로, 형용사·형용동사·상태동사를 수식하고 있는 『隨分』과는 구별해야 한다. 결국 『隨分』이 『할 수 있는 한(できる限り, できるだけ)』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隨分』자체가 의지동사와 호응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隨分』의 예는 가능문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를 3.부사『隨分』과 가능문과의 연관관계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 3. 부사 『隨分』과 가능문과의 연관관계

앞에서 『隨分』의 의미를 검토한 결과, 『隨分』이 『隨分』의 수식을 받고 있는 술어의 의미적 특성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隨分』이 수식하고 있는 술어의 의미적 특징이 상태성인가 동작성인가, 아니면 의지성인가 무의지성인가에 따라 그 의미 해석이 달라진다.

『隨分』이 무의지성 술어를 수식할 때는 『상당히, 아주, 꽤』의 의미, 반면 의지성 술어를 수식할 때는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한』의 의미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 후자의 경우, 『隨分』은 부사이지만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한』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가능문과의 연관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우선 데라무라(寺村, 1982)의 가능문에 나타나는 동사의 조건에 대해서 보기로 하자.

可能態をとることのできる動詞は、これまでに何人かによって指摘されてきたように、意志的な動作を表わすもの([+意志])でなければならない。『可能』というのは、何々しようとするに対してそれを妨げるものがない、という表現である、というふうに一般化することができるから、これは當然ともいえる。[-意志]の動詞、～シヨウ、～シロという形のとれないもの、たとえば次のようなものは、可能態をとることができない。

a. (雨が)降ル/ヤム、(子ドモガ)生マレル、(人、物が)落チル、カブサル、キマル、広マル、消エル

b. フサガル、ツカマル、マタガル、ツナガル

c. アク、カタムク

寺村(1982:p.263)<밑줄은 필자에 의함>

테라무라(寺村)는 위와 같이 가능문(可能文)에 있어서 의지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만이 가능술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 또한, 이노우에(井上, 1976)는 다음과 같이 가능문(可能文)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可能文の補文の述語は、主語の意志によって制御できる非状態動詞でなければならない。したがって、補文の主語は受動文の場合と同様、生き物を表わす名詞か、自ら動くことのできる([+動的]の特徴を持つ)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井上(1976:p.99)<밑줄은 필자에 의함>

이상은 가능표현 성립에 관계하는 동사의 종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만, 「随分」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できる限り, できるだけ」라는 가능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부사에도 이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면 「随分」의 의미를 보다 적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즉, 가능문의 술어는 주어의 의지에 의해서 제어할 수 있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이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문의 주어는 유생물명사구만을 취한다. 2.2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한 힘껏」의 의미로 해석되는 「随分」에 나타난 용례는 그 주어가 유생물명사, 즉 인간인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를 다시 한 번 제시한다.

(12) '(孫一)\自然さやうの事も御ざるならば、き(聞)きまらして、此兩人して、随分かなへてしんぜうとぞんじて是まで参て御ざる『枕物狂』中・226-1  
(손자1)\만약 그러한 일이 있다면 [할아버지 말씀을] 듣고서, 저희 들어서 {할 수 있는 한, 되도록, 가능한 한 / \*상당히} 이루어 드리려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18) '(ばくち打)\某ずいぶん(随分)申て、只今はへ同道いたひてござる『みめよし』下・227-17  
(도박꾼)\제가 {할 수 있는 한(최선을 다해서) / \*상당히} 말해서 지금 여기에 같이 왔습니다.

- (25)'(妻)\わらはも今までは、随分かせひで御ざれども、さうもならぬ程に、とかくいか(生)いておいていらぬもので御ざる程に、～「はらきらず」中・195-9  
 (아내)\나도 지금까지는 {?상당히/할 수 있는 한(힘껏,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었지만 도저히 안 되니 어쨌든 간에 살려 둘 필요 없는 사람이 나~

한편, 2.1 「상당히, 아주, 꽤」의 의미로 해석되는 「随分」이 쓰인 예에서는 주어가 유생물명사구로도 무생물명사구로도 나타난다.

- (1)'(牛博勞)\某が随分と(疾)うまいつたとぞんじたれば、はやなに(何)者やらまいつたよ、「牛馬」上・121-6  
 (소거간꾼)\내가 상당히 빨리 왔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어떤 자가 왔구나.  
 (5)'(太郎冠者)\なふおそ(恐)ろしや、あれにはけ(化)物が有、大仏のしやが(釈迦)と、随分おう(大)きひと存したがそれよりおう(大)きな、「なまぐさ物」中・130-10  
 (다로카자)\아이고, 무서워라. 저기에 귀신이 있다. 대불석가(大佛釋迦)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도 크구나.

이상의 「随分」은 「상당히, 아주, 꽤」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이에 해당하는 주어에는 무생물명사구의 출현도 허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능문의 술어에는 의지동사가 와야 하는 것처럼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한」의 의미가 내포된 부사「随分」에도 연관을 지어서 그 의미를 생각한다면, 『도리아키라본 교겐(虎明本狂言)』에 나타나고 있는 「随分」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현대일본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지 않은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随分」의 의미를 가능표현과 관련지어 분석해 보았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의 「随分」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케다·기타하라(池田·北原)의 주석(註釋)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28)(ばくち打)\そのぎ(儀)ならば、みどもがずいぶん(隨分)申さうほどに、只今仰られたとをり、やくそく(約束)をちが(違)へさせられな 「みめよし」下・226-9

(도박꾼)\그런 뜻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최대한) 말을 할 테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바꾸지 마시오.

(29)(太郎冠者)\お心やすふおほしめせ、隨分御地走申さう「粟田口(あはたぐち)」上・215-10

(다로카자)\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게. {할 수 있는 한(가능한, 힘껏)} 대접을 해 드리리다.

「隨分」의 의미를 이케다·기타하라(池田·北原)는, (28)은「できるだけ, 極力, せいぜい」, (29)는「私にできる限り」로 주석에 명기하고 있다. (28)(29)의 「隨分」이 수식하고 있는「申す」「御地走申す」<sup>8)</sup>는 동작동사 및 의지동사이며, 이들 동사가 의지의 조동사「う」와 접속하고 있기 때문에「申す」「御地走申す」의 수식어인「隨分」의 주석은「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한」으로 설명이 적합하고, 그렇기 때문에 용례 해석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용례의 「隨分」의 주석(頭注 二九, 上・p.208)에는「相當に」로 명기하고 있어 의문이 생긴다. 우선「相當に」의미 그대로 해석을 하면 다음과 같다.

(30)(新座)\ぞんじたと申程な事ではおりなひが、さりながら、わたくしはからかさ(秀句傘)를 ずいぶん 申さう「しうくがらかさ(秀句傘)」上・209-6

→(신참)\알고 있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나는 지우산을 세공합니다. 이 지우산에 맞추어서 한다면 {(?)상당히, 아주, 꽤} 하겠습니까.

그러나 위의 (30)의 「隨分」도 (28)(29)와 마찬가지로「가능한 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힘껏」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신참)\알고 있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나는 지우산을 세공

8) 「御地走」는 「御馳走」를 말함. 원문에 충실했음.

합니다. 이 지우산에 맞추어서 한다면 할 수 있는 한(최선을 다해서) 하겠 습니다.

로 해석해야 마땅하다고 여겨진다. 과거의 언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 당시의 어휘의 의미, 문법형식 등이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어 연구자에 따라 해석상의 차이가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隨分』의 가능표현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위와 같은 견해를 제시한다. 또한 그 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해 용례 (30)의 전후문맥을 해석해 보기로 한다.

- (30)'(大名)\それは一段の事じや、ほねおりなれども、なんぢはかいだうへいで、しうくをしつた者おゐてこひ  
(太郎冠者)\かしこまつてござる  
(中略)  
(太郎冠者)\いやまひる程にかいだうじや、是にまつて、よきさうな者を見はからふておこふと存る  
(しんぎのもの、からかさをかたげていづる))  
(新座の者)\是ははるか遠国の者でござる、某いまに、都を見物いたさぬ程に、たゞ今罷上り、又よからふ所もあらはほうこうをいたさうと存る  
(中略)  
(太郎冠者)\是へ參る者は、一段よきさふなものじや、言葉をかけう、しい  
V申  
(新座)\こなたの事でござるか  
(はなとりのごとくにしておき、道すがらよの事はとはぬなり))  
(太郎冠者)\してかたVはしゆうくを御ぞんじか  
(中略)  
(新座)\ぞんじたと申程な事ではおりなひが、さりながら、わたくしはからかさをさいくにいたす、此からかさに付てならば、ずいぶん 申さう  
(太郎冠者)\夫は近此じや、たのふだ人はしうくずきじやによつて申、一だんゑつきであらふござれ

『しうくがらかき(秀句唐笠)』中・209-6

(다이묘)\그것참 아주 잘된 일이다. 수고스럽겠지만 너는 큰길가로 나가서 슈쿠(秀句)를 알고 있는 자가 있으면 고용해 오너라.

(다로카자)\알겠사옵니다.

(중략)

(다로카자)\아, 오다보니 큰길이로구나. 여기에서 기다리면서 괜찮은 자를 잘 골라서 고용해야겠습니다.

((신참자가 지우산을 짊어지고 나온다.))

(신참자)\저는 아주 먼 지방 사람입니다. 저는 아직 수도를 구경하지 않아서 지금 상경하는데, 또 좋은 곳도 있으면 봉공을 하려고 합니다.

(중략)

(다로카자)\여기로 오는 자는 아주 괜찮아 보이는 자로다. 말을 걸어봐야겠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신참)\나 말이오?

(중략)

(다로카자)\그런데 당신은 슈쿠(秀句)를 아시는가?

(중략)

(신참)\알고 있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나는 지우산을 세공합니다. 이 지우산에 맞추어서 한다면 「상당히, 꽤(?)」/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다로카자)\그것참 아주 좋소. 주인님은 슈쿠(秀句)를 좋아하시니 대단히 기뻐하실 것이오. 가시게.

이상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신참(新座)은 지우산을 세공하는 사람이다. 슈쿠(秀句)<sup>9)</sup>를 알고 있느냐는 다로카자(太郎冠者)의 물음에는 「ぞんじたと申程な事ではおりなひが、(알고 있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라고도 대답하고 있다. 즉, 자신은 지우산을 세공하는 사람이므로 지우산에 한해서 슈쿠(秀句)를 하라고 하면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다는 의미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때의 「隨分」은 「꽤, 상당히(かなり, 相當に)」보다는 「가능한 한, 자신에게 있어서 할 수 있는 만큼(できるだけ、私にできる限り)」의 의미가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이상, 「隨分」의 다중성 즉, 「상당히(かなり, 相當に)」와 「할 수 있는, 가능한

9) 巧みに言いかけたしゃれの句。すなわち、地口(じぐち)・口合(くちあい)の類。かるくち。すく。新村出 編(1995)、『広辞苑』、p.1043

한(私にできる限り, できるだけ)』의 두 가지 의미를 가능문과 연관 지어 고찰·분석해 보았다.

#### 4. 맺음말

현대일본어에 있어서 『隨分』은 그 수식어의 성격 — 상태성인가 동작성인가, 의지성인가 무의지성인가 — 에 관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상당히, 아주, 꽤: 相當に, かなり』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지만, 고전일본어에서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힘껏(できるだけ, せいいっぱい, 極力)』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와 같이 고전일본어의 『隨分』은 현대어와는 다른 다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隨分』을 해석할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그 검토 방법으로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첫째, 『隨分』의 수식을 받는 술어가 상태성술어인가 동작성술어인가, 나아가서 의지성술어인가 무의지성술어인가? 『隨分』이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한』의 의미로 해석될 때의 전제조건은 『隨分』이 수식하는 술어는 반드시 동작동사·의지동사이어야 하며, 이 술어의 주체는 유정물(인간)이어야 한다. 둘째 『隨分』의 수식을 받는 술어가 가능문으로의 전환이 적합한가인데, 『隨分』이 『できるだけ, できる限り』라는 가능의 의미를 갖는 부사일 경우에는 가능문으로의 성립을 전제로 하고 있어야 한다. 즉, 『隨分』의 수식을 받는 술어는 가능문으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隨分』의 의미를 고찰한 결과, 고전일본어에서의 『隨分』은 『상당히, 아주, 꽤』,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한, 되도록』, 『결코』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존재했는데, 이처럼 하나의 단어에 대한 과중한 의미 부여는 언어운용상 불합리함을 초래했다고 판단된다. 그 결과, 『상당히, 아주, 꽤』의 의미는 『隨分』이 담당하고, 『할 수 있는 한』의 의미는 『できるだけ, せいいっぱい』가 담당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상, 본 논문에서는 『도라아키라본 교겐(虎明本狂言)』이라는 언어자료를 대

상으로 하여 중세일본어의 「随分」의 의미를 고찰해 보았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고찰대상을 『도라아키라본 교겐(虎明本狂言)』으로 한정하였기에, 중세일본어 나아가 고전일본어에서의 「随分」의 의미적 총화를 확정지을 수 없었고 나아가 과거의 「随分」이 현대어로 이행되는 과정에 어떤 의미적 변화 과정을 거치고 역할 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어지(語誌)적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금후에는 해당 시기의 폭넓은 언어자료를 포괄하여 「随分」의 예를 분석, 검토함으로써 본 논문에서 얻은 결론이 과연 타당한가를 검증하기로 하겠다.

### 참고문헌

- 池田広司·北原保雄(1972~1983) 『大蔵虎明本 狂言集の研究 本文篇 上·中·下』, 表現社  
 井上和子(1976) 『変形文法と日本語(上)』, 大修館書店, p.99  
 北川忠彦·安田 章 校注(1972) 『日本古典文学全集 狂言集』, 小学館, pp.5~55  
 小林 責監修·油谷光雄編(1995) 『狂言ハンドブック』, 三省堂, p.158  
 小山弘志 校注(1961) 『狂言集 上』, 岩波書店, pp.3~37  
 寺村秀夫(1982)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 I』, くろしお出版, p.263  
 蜂谷清人(1977) 『狂言台本の国語学的研究』, 笠間書院, p.364

### —사전류—

- 北原保雄·鈴木丹士郎·武田 孝·増淵恒吉·山口佳紀 編(1981) 『日本文法事典』, 有精堂  
 金田一春彦·林大·柴田武 編(1988) 『日本語百科大事典』, 大修館書店  
 金田一春彦 編(1972) 『新明解古語辞典』, 三省堂  
 小池清治·小林賢次·細川英雄·犬飼 隆 編(1977) 『日本語学キーワード事典』, 朝倉書店  
 新村出 編(1995) 『広辞苑』, 岩波書店  
 日本大辞典刊行会編(1980) 『日本国語大辞典』, 小学館  
 松村 明 編(1971) 『日本文法大辞典』, 明治書院  
 室町時代語辞典編修委員会編(2001) 『時代別国語大辞典·室町時代編』, 三省堂

- ❖ 투고일 : 2008. 6. 30
- ❖ 심사일 : 2008. 7. 29
- ❖ 심사완료일 : 2008. 8. 1